



2019년 12월 6일 (금)

19:00—21:00

DIS <절호의 위기>, 2019

3분 48초



작가 소장

미국 HBO 시리즈 《왕좌의 게임》의 등장인물인 ‘나이트 킹’에 의하면 월가에 영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구해주는 대신 2000년대 중반에 닥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이루어진 경제개혁에 이어 경제혁명을 이룰 기회를 놓쳤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절호의 위기>는 시각적으로 세련된 광고나 TV 콘텐츠를 모방하여, 끊임없이 들어선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생활을 배경으로 우리의 궁핍한 현실을 폭로한다.

2010년에 결성된 DIS는 로렌 보일, 솔로몬 체이스, 마르코 로소, 데이비드 토로로 구성된 뉴욕 기반의 콜렉티브다. DIS는 TV,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취한 형식, 내용, 전략을 결합하여 동시대 문화에 대해 논의하고 제작,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한다.

미네르바 쿠에바스 <해적과 영웅>, 2006 & <상상의 경제>, 2006

13분 45초



이번 상영에서는 두 작품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작품의 일부를 교차편집하여 선보인다. 이 작품은 만화적 전형성과 할리우드의 역사를 살피면서 슈퍼히어로, 사회적 영웅주의, 역동적인 해적 행위, 그리고 공적인 영역을 다룬다. 쿠에바스는 <상상의 경제>에 출연할 배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시티 전역에 “슈퍼 히어로 구함(Se buscan superheroes)”이라고 적힌 전단을 배포했다. 한편, <해적과 영웅>은 사회 계층각층의 사람들에게 초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멕시코의 슈퍼히어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미네르바 쿠에바스(1975년, 멕시코시티)는 현재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영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그는 주로 유머를 장치로 활용해 도시환경의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을 다루고 드러낸다. 쿠에바스는 제6회 리버풀비엔날레(2010), 제9회 리옹비엔날레(2007), 제27회 상파울루비엔날레(2007)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쿠리만주토 갤러리(kurimanzutto gallery) 소장

무니라 알 카디리 <SOAP>, 2014

8분 12초



작가 소장

이 작품은 걸프 지역에서 대량 제작, 방영되는 TV 시리즈의 클립을 사용해 해당 지역의 사회 이슈를 다룬다. 제목은 “연속극(soap opera)”과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비누(soap) 양쪽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걸프 지역 이주 노동자의 존재와 불안정성이 간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문화에서도 이들이 대체로 지워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니라 알 카디리(1983년, 다카르)는 세네갈에서 태어난 쿠웨이트 작가로, 일본에서 공부한 후 현재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알 카디리의 작품은 관습을 벗어난 성 정체성, 석유 문화권과 그 잠재된 미래 및 부패의 유산을 다룬다. 알 카디리는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2019), 제9회 아시아태평양양트리엔날레(2018), 제6회 아테네비엔날레(2018), 제20회 비디오프라질 페스티벌(2017)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토비아스 칠로니 <마스키로프카>, 2017

8분 46분



작가 및 KOW(베를린, 마드리드), 리아 루마(밀라노, 나폴리) 소장

2016~2017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2013년 시위의 여파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언더그라운드 쿼터 테크노 씬을 더듬어 본다. ‘마스키로프카’는 주로 러시아 또는 구소련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국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된 정치적, 군사적 속임수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작가는 다량의 이미지를 정신 사납게 뒤섞어 키예프에서의 삶을 콜라주로 만들고, 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모아서 대면하게 한다.

토비아스 칠로니(1973년, 부퍼탈)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토그래피이자 작가이다. 그의 실천은 지배적인 사회적 구조 및 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연출하는 모습을 다루면서 다큐멘터리와 허구적인 접근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칠로니는 부퍼탈 폰 데르 하이트 쿤스트할레(2017-2018), 켈거리 에스카재단(2014) 등에서 전시한 바 있다. 또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2015), 런던 포토그래퍼스 갤러리의 독일 비르제사진재단상(2016), 제2회 몬테비데오비엔날레(2014)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치카코 야마시로 <정육점 여자>, 2016

27분



© 치카코 야마시로, 유미코 치바 협회 소장

미군 기지에 인접해 있어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목인 해안(Connivance Shore)’ 지역에서 도로확장 작업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고기 한 덩어리가 물가로 밀려온다. 이 고깃덩어리는 미군 기지 암시장의 정육점으로 흘러 들어가고, 정육점 여자는 여느 때처럼 고기를 썬다. 고기에 목마른 사람들이 고기 조각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의 몸이 서서히 고깃덩어리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정육점 여자>는 드라마에 판타지와 약간의 호러의 요소를 접합시켜 정체성, 소속, 지정학, 탐욕을 다룬다.

치카코 야마시로(1976년,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퍼포먼스, 사진, 영상 작업을 한다. 야마시로는 작업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고향 오키나와의 복잡한 맥락을 탐구하며, 체화된 경험과 허구적인 접근을 결합한다. 그는 제8회 아시아퍼시픽트리엔날레(2015-16), 제3회 아이치트리엔날레(2016), 도쿄 모리미술관(2012-13) 등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9년 12월 7일 (토)

14:00—16:30

무니라 알 카디리 <우주선>, 2017

16분



작가 소장

작품 속 화자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 부모님이 외계인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무니라 알 카디리는 자신의 가족사에서 비롯된 소재로 미래지향적인 건축, 대중문화, 해몽, 불량식품, 외계인의 납치, 지정학, 외교, 전쟁과 평화 등 현대 생활의 토대에 대해 질문한다. 아이의 눈으로 기억과 역사를 다시 볼 때, 이러한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무니라 알 카디리(1983년, 다카르)는 세네갈에서 태어난 쿠웨이트 작가로, 일본에서 공부한 후 현재는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알 카디리의 작품은 관습을 벗어난 성 정체성, 석유 문화권과 그 잠재된 미래 및 부패의 유산을 다룬다. 알 카디리는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2019), 제9회 아시아태평양트리엔날레(2018), 제6회 아테네비엔날레(2018), 제20회 비디오브라질 페스티벌(2017)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쉬 쩌워 <유일한 사본>, 2019

21분 17초



작가 소장

1971년, 세 살배기 결합 쌍둥이인 장중런(張忠仁)과 장중이(張忠義)가 대만에서 12시간에 걸친 분리 수술을 받는 모습이 TV에 생중계 되었다. 이처럼 중대한 개인적 사건이 대중 매체에 의해 국가적인 스펙터클이 된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된 작가는 장중이와 오랜 기간 동행하며 그의 이야기를 더듬어간다. 그 결과물인 이 작품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를 왕복하고, 현실과 허구 사이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유사 다큐멘터리이자 시각적 모험이다.

쉬 쩌워(1985년, 타이페이)는 타이페이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영상, 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주로 기억과 미디어의 관계에 내재된 복잡성을 다룬다. 그의 실천 전반에서 역사는 개인의 기억과 대중 매체의 병치를 통한 기억의 구성 및 시각화의 결과이다.

요한나 빌링 <마법 같은 세상>, 2005

12분 25초



작가 소장

반복재생되는 이 영상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교외 지역 두브라바의 한 무료 방과후센터에서 아이들이 1968년도 노래인 “마법 같은 세상”을 연습하는 광경을 보여준다. 시드니 반스가 작곡하고 밴드 로터리 커넥션이 불렀던 이 곡은 1960년대 미국 사회의 격변과 시민 평등권 운동을 유고슬라비아 전쟁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크로아티아의 어린이 세대와 연결한다. 이 작품은 아직 미완성인 80년대 문화센터의 주변 광경을 병치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에서 아직 회복 중인 공동체를 비춘다. 아이들의 노래와 연주는 곡의 역사적인 맥락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미래에 맞선 저항과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스웨덴 태생의 작가 요한나 빌링(1973년, 엔세핑)은 스톡홀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음악과 움직임, 그리고 리듬을 결합하여 소통, 기억, 재건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실시간 공동 작업, 워크숍, 영화적 언어와 같은 프로덕션의 양식과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해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다룬다. 최근 《About Art: I'm Lost Without Your Rhythm》(트론헤임 미술관, 2017), 《Keeping Time》(제노아 빌라크로체현대미술관, 2016)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리처드 벨 <브로큰 잉글리시>, 2009

11분 30초



작가 및 브리즈번 밀라니 갤러리(Milani Gallery) 소장

작가 리처드 벨과 역사가 개리 풀리가 등장하는 3부작의 일환인 이 작품은 호주 원주민, 즉 애버리지니와 식민 이주자들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 벨은 다양한 맥락 안에서 질문을 제기하여 애버리지니의 정치적 권익 신장을 둘러싼 문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토착민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가인 벨의 방법론은 ‘예술가를 가장한 운동가’를 자처하는 것이다. 벨은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특혜를 누리는 일련의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실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호주 출신의 리처드 벨(1953년, 퀸즐랜드)은 원주민 공동체 ‘카밀라로이’, ‘쿠마’, ‘지만’, ‘구랑구랑’의 구성원이며 예술가이자 운동가이다. 그는 영상, 설치, 회화, 글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며 인종차별, 식민주의, 원주민 권리 등의 문제를 꼬집기 위해 유머와 풍자를 더한다. 최근 전시로는 개인전 《Dredging up the Past》(멜버른 거트루드 컨템포러리, 2018)와 친구 및 동료와 함께 한 《BELL invites...》(암스테르담 스테델릭미술관, 2016) 등이 있다.

밍 워 <블러디 메리들—남쪽 바다의 노래>, 2018

5분 26초



작가 소장

“발리 하이”는 로저와 해머스타인이 제작한 뮤지컬 <남태평양> 속 통킹 지방(베트남 북부)의 여성 지도자 블러디 메리가 부르는 노래이다. 원작인 제임스 미치너의 폴리처 수상 소설 『남태평양 이야기』(1947)를 바탕으로 1958년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관한 영화로 변모한 뮤지컬에서 이 인물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성 지도자로 묘사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발견한 고등학교 뮤지컬 공연 자료로 구성된 16가지 ‘블러디 메리’는 작가의 해석과 영화 속 원조 블러디 메리와 함께 엮여 있다. 이 중첩된 메리들은 식민지 시대에 침묵 당하고 정체가 지워진 수많은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한다.

밍 워(1971년, 싱가포르)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영상, 퍼포먼스, 설치 작가이다. 그의 실천은 연기와 퍼포먼스 개념에 천착하며, 언어, 민족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교차 지점을 살피기 위해 영화적 유산을 차용한다. 최근 참여 전시로는 제20회 시드니비엔날레(2016)와 제10회 상하이비엔날레(2014), 그리고 제12회 리옹비엔날레(2013) 등이 있다.



2019년 12월 8일 (일)

14:00—18:30

강상우 <클린 미>, 2014

22분



경기도미술관 소장

병철은 감옥 밖에서의 첫날을 보낸다.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나는 직업 교육을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보내졌다. 출소 이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낸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청소 용역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범죄자를 담은 영화들이 갑자기 생각났고, 나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 강상우

강상우(1983년, 서울)는 픽션과 논픽션을 아우르며 작업하는 영화감독이다. 그의 단편 <백서>(2010), <클린 미>(2014), <우리는 없는 것처럼>(2016) 등은 밴쿠버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등 영화제와 미술관에서 상영되었다. 그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김군>(2018)은 2018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018년 올해의 독립영화상, 2019년 무주산골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침묵>, 2016

7분 45초



퍼포먼스: 아에리아 네그로 / 마르셀 알릭스, 엘렌 드 브라이네 소장

<침묵>은 존 케이지의 1952년 스코어 “4분 33초”의 재해석으로 시작한다. 어떤 악기로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작곡된 이 작품은 연주자들에게 전체 시간 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음악가 아에리아 네그로(Aérea Negrot)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난민 시위 현장이었던 베를린 오라니엔플라츠 광장에 놓인 회전 무대에서 이 스코어를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그는 작품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노래를 부른다. 목살당하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경험으로서의 침묵과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불복종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강력한 저항의 움직임으로서의 침묵. 이 두 가지가 서로 엮일 수 있을까?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뒤로 가기>, 2019

20분 35초



안무 및 퍼포먼스: 줄리 커닝햄, 베르너 허쉬, 라티파 라비시, 마블스 점보 라디오, 나호 / 마르셀 알릭스, 엘렌 드 브라이네 소장

<뒤로 가기>는 포스트모던 안무와 어반 댄스를 게릴라 전술과 쿼어 하위문화의 요소들과 결합하고, 저항적 실천을 탐구하면서 뒤로 밀려나는 느낌에 응답한다. 서로 다른 배경의 무용수 다섯 명은 역방향 동작들의 개념과 시공간적 의미를 복잡하게 만든다. 걸음걸이, 독무와 군무의 일부가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일부는 역재생되어 작품 전체에 걸쳐 의문과 모호함을 자아낸다.

2007년부터 함께 활동한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는 가시성과 불투명성 사이의 긴장을 안무로 연출하면서 오브제와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의 작업은 카메라 앞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 즉 인물과 동작이 시간과 함께 연출되고,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포착하여 규범적인 역사 서사와 관습적인 관람의 방식을 흔들어 놓는다. 최근 전시는 《Moving Backwards》(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스위스 파빌리온, 2019), 《Ongoing Experiments with Strangeness》(베를린 울리아 스토셰크 컬렉션, 2019), 《Everybody Talks About the Weather...》(뉴욕 파티시펀트 Inc., 휴스턴 CAMH, 2017) 등이 있다.

스파이크 존즈 <그녀>, 2013

126분



상영본 제공: 더쿵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그녀>는 주인공 테오도르 톰블리(호아킨 피닉스 분)와 “사만다(스칼렛 요한슨 분)와의 교감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친밀감과 연결에 대해 탐구한다. 오랜 연인과의 이별 후 슬픔에 잠긴 남성과 섬세하고 재치 있는 AI의 여성 목소리가 우정을 쌓아가면서 이들의 욕망과 욕구도 함께 자라난다.

스파이크 존즈(1969년, 록빌)는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이다. 비스티보이즈의 “Sabotage”, 위저의 “Buddy Holly” 그리고 크리스토퍼 워켄이 주연한 팻보이 슬림의 “Weapon of Choice”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찰리 카우프만이 각본을 쓴 존즈의 첫 장편 <존 말코비치 되기>(1999)는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컬트 명작 중 하나로 회자된다. <어댑테이션>(2002), <괴물들이 사는 나라>(2009)를 연출했으며, TV 채널 바이스랜드(Viceland)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극장상영회

2019. 12. 6 - 8

서울극장 5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6층)

참여작가

무니라 알 카디리, 리처드 벨, 요한나 빌링, 폴린 부드리 / 레나테 로렌츠, 미네르바 쿠에바스, DIS, 쉬 쩌위, 강상우, 스파이크 존즈, 밍 윙, 치카코 야마시로, 토비아스 칠로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예술감독	윤 마
큐레이터	이지원, 클라우디아 페스타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유지원, 허미석
프로듀서	김신재
자막 및 DCP 제작	진미디어
자막 번역/스파팅	정은영
통역	조용경
번역	이민영
그래픽 디자인	김은지 (개미그래픽스)
운영대행	문화교류연구소
기록 촬영	곽소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전시과장	고원석
큐레이터	이지민
교육홍보과	김채하
행정	정재훈

주최/주관